



지난 19일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회장:이종윤)는 2026년 회장단회의를 땅그랑소재 임페리얼에서 열었다.

MONTHLY **KOFA**

코파의

정음

Ruko Pinangsia Block B No.25, Tangerang, Jl. Boulevard Jend. Sudirman, RT.001/RW.009, Panunggan Bar., Kec. Cibodas, Kota Tangerang, Banten 15138, Indonesia
Tel. 0856 9113 2325,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Vol. **142**
2026/07

KOWEB INDONESIA

**홈페이지
제작 합니다**

0812 9354 7052
yoon@koweb-indonesia.com
카카오 ID : rickyoon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KOFA 재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 2026년 상반기 회장단 회의 열려



지난 19일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회장:이종윤)는 2026년 회장단회의를 땅그랑소재 임페리얼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송창근 명예 회장을 비롯해 약 30여명의 회장단이 참석해 점점 어려워져 가는 글로벌경기와 맞물려 신발산업 전반적인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과 어려운 가운데 함께 극복하자는 분위기의 회의

가 열렸다. 한편 이종윤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했으며 현재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원유 상승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고 중동전쟁 끝날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좋은 소식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힘든 시기이지만 회장단과 회원사 모두가 힘내서 이겨내길 바란다

상반기 회장단회의에는 2025년 회계보고가 있었으며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회의의 미래와 상생가치를 위한 폭넓은 대화와 토론의 장이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회 하반기 사업과 2027년 비전을 위한 준비를 함께 하자는 의견들로 회의가 이어갔다.

[편집국]

프라보워 대통령, 외국인 투자 현황 공개 지시... 투명성 및 신뢰 제고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로산 로에슬라니 투자 및 하류화부 장관 겸 BKPM 청장, 그리고 다난타라 투자관리기구(BPI) 청장에게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최신 외국인 투자 데이터를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정부의 투명성 강화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로산 장관은 이 보고를 통해 국제 사회의 신뢰 증가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 관심 고조와 관련된 다양한 투자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테디 인드라 위자야 내각 비서관은 성명에서 “대통령께서는 투자 및 하류화부 장관이자 다난타라 BPI 청장으로부터 미국 및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국가 방문 결과를 보고받으셨다” 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주요직장관과 회동하고 있다.

증가를 보여주는 유효한 사실과 데이터를 제시하며, 이는 다양한 국가 전략 부문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 유입으로 반영된다” 고 덧붙였다. 테디 비서관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로산 장관에게 외국인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과 관련된 긍정적인 데이터를 대중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역학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투자 전망과 경제 성장에 대한 대중의 낙관론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포스트]

윤순구 인도네시아 대사, 부임 6개월 만에 신임장 제정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신임장 전달... ‘외교적 결례’ 논란 속 뒤늦은 제정

윤 대사 “호혜적·균형적 이익 위해 양국 관계 강화 최선 다할 것”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는 윤순구 대사 [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윤순구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가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현지시간) 프라보워 대통령은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윤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았다. 신임장은 파견국의 정상이 접수

국 정상에게 외교관 임명 사실을 알리고 해당 외교관을 신임해 달라는 취지로 전달하는 공식 문서다. 통상 각국 대사는 부임 후 주재국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해 먼저 외교 활동을 시작한 뒤, 추후 일정이 잡히면 주재국 정상에게 원본을 직접 제정한다. 윤 대사는 지난해 12월 부임했

으나 약 6개월이 지나서야 신임장 원본을 전달하게 됐다. 통상 신임장 제정까지 2~3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정은 다소 늦어진 편이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일정 등을 이유로 제정식이 지연된 것을 두고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신임장 제정식 직후 이어진 환담에서 윤 대사에게 “지난 4월 국민 방한 때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결과가 매우 훌륭했다”면서 “자카르타에서 이 대통령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고위급 외교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에 윤 대사는 “대사 임기 동안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호혜적이면서도 균형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양국 관계를 더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

HKI
PT. HANJIN
KONSTRUKSI INDONESIA

HJJ
PT. 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https://hanjin.co.id/>

Jl. Raya Serang – Jakarta KM. 80, Kel. Kaserangan, Kec. Ciruas –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https://hanjin.co.id/>

반동의 나이키 공급업체, 주문 감소에 근로자 4천명 일시 휴직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서부자바 반동의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Nike)와 푸마(Puma)에 신발을 공급하는 공장에서 생산 주문 감소로 약 4천명의 근로자가 일시 휴직 상태에 들어가 대규모 해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자카르타글로벌브가 22일 전했다.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노동 및 근로자복지 특별보좌관인 사이드 이크발은 해당 근로자들

이 서부자바 반동군에 위치한 신발 제조업체 핑타이 인도네시아 엔터프라이즈(Feng Tay Indonesia Enterprises) 소속이라고 밝혔다.

사이드 이크발은 21일, 현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이들 근로자가 영구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반동군에서 약 4천명의 근로자가 해고 위험에 처해 있으

며 초기 조사 결과 이는 전체 직원 1만4천~1만7천명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사이드 이크발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들은 나이키 주문 물량 생산을 마친 뒤 향후 추가 주문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귀가 조치됐다.

“핑타이는 나이키 주문 물량 생산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다음 주문을 기다리고 있다. 추가 주문 여부가 불확실해 나이키 신발 생산을 마친 4천명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 문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는 일부 원자재를 나이키가 직접 공급했으나 현재는 제3차 공급업체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중동 분쟁으로 인한 물류 차질이 원자재 유통에 영향을 미치면서 생산 운영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사이드 이크발은 덧붙였다.

그는 “근로자들이 이미 귀가 조치된 상황이라면 다른 사례들처럼 대규모 해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며 “쁘라보워 대통령은 대량 해고를 원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 관계자와 노동조합 대표들과 함께 22일 핑타이를 방문해 회사의 경영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해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핑타이 인도네시아 엔터프라이즈는 대만계 핑타이 그룹(Feng Tay Group) 산하 기업으로 1992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해 왔다. 회사는 반동의 32헥타르 규모 공장에서 약 1만 6천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자카르타글로벌브/자카르타경제신문]

미국의 대인니 강제노동 관세 10%, 7월 24일 이후 시행 전망

미국이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부과하기로 한 10% 강제노동(Forced Labor) 관세가 기존 수입관세와 중복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오는 7월 24일 이후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발표를 인용, 5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품에 대한 규제 실태를 조사한 뒤 인도네시아에 대해 새로운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Trump 2.0)는 강제노동 관련 수입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실효성 있게 집행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1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관련 규정은 마련했지만 충분히 집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됐다. 이번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와 신규 관세 부과 문제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미슨 그리어 대표간 회담의 핵심 의제였다. 두 사람은 인도네시아가 가입을 추진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련 회의 참석차 파리에 머물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10% 관세는 이른바 ‘글로벌 관세(global tariffs)’가 종료되는 7월 24일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이후 지난 2월 임시 조치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으며, 이 조치는

150일 동안만 유지돼 오는 7월 24일 종료된다.

경제조정부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강제노동 관세의 시행 시점을 조정된 것은 현재 적용 중인 임시 10% 글로벌 관세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미국 내 법적 절차를 고려해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한 미국이 자국이 제안한 18개 품목의 관세 예외 적용안(product exclusions)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외 적용이 승인될 경우 수출 비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당 18개 품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이 강제노동 조사에 착수한 지 약 한 달 뒤인 4월 중순, 인도네시아 부디 산토소 무역부 장관은 강제노동과 연계된 수입품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했다. 미국 역시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 규정을 언급했지만, 인도네시아가 실제로 관련 물품에 대한 조사나 압수 조치를 실시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이를랑가 장관의 보좌관인 하로 리만세토는 앞서 자카르타글로벌브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관세 발표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과 “건설적인 방식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미국과 관세 관련 합의에 도달한 국가 가운데 하나다. 이 합의 덕분에 인도네시아는 12.5% 대신 10%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인쇄/출판 광개토 Kwanggaeto

인쇄

카다록 / 브로슈어 / 리플렛 / 신문 / 메뉴판
BOOK / 사용설명서 / 사보 / 회보 / 지명원
보고서 / 회사소개서 / 교재 / 각종 양식외
카렌다 / 명함 / 봉투 / 바인더 / 쿠폰 / 초대장
인박스 / 제품 패키지 /
스티커 / 라벨 / 행택 / 컴퓨터 커팅

021 3002 9087 021 3002 9091 / 9090
0858 9060 0962

PT ALJIUM GREEN NUSA

정직하고 품질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겠습니다!

— LS-AG Cable Indonesia 공식 대리점 —

LV 케이블/Building 케이블

산업용 케이블

Overhead 케이블

Busduct

HEAD OFFICE
Ruko Dalton Extension DLNT 052-053
Jl. Scientia Boulevard, Gading Serpong,
Curug Sangereng, Kelapa Du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810
Tel: 0811 8126 7788 (☎)
0811 8430 561 (한국인 상담)

www.lscns.com
www.ltag.co.id

Karawang 공장

Artha Industrial Hill
Blok E Kav 20-21, Wanajaya,
Telukjambe Barat,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021 3973 3988

OFFICIAL DISTRIBUTOR | 공식 대리점

PT ALJIUM GREEN NUSA

재인도네시아 다문화가정 후원회, ‘2026 다문화 한마음 큰잔치’ 성료

다문화 가족 및 교민 등 250여 명 대거 참석... 화합의 장 마련
공식 웹사이트(www.ywkifamily.org) 오픈, 체계적 후원 체계 구축



재인도네시아 다문화가정 후원회(Yayasan YWKI)가 주최하고 찌뜨라 라야 땅그랑 코리아가 주관한 ‘2026 다문화 한마음 큰잔치’가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땅그랑에 위치한 찌뜨라 라야 스포츠클럽 다목적홀에서 대성황을 이루며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다문화 가족과 교민 등 약 250여 명이 대거 참석하여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정해관 공사 겸 총영사, 박성대 땅그랑 반딧 한인회장, 채만용 땅그랑 반딧 명예회장, 이정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



▲재인도네시아 다문화가정 후원회 최진덕회장

아 남부협의회장, 자유총연맹 이창균 사무총장, 코린 쿡웨어 이원화 대표, 보성 양유중 전무 등 주요 내빈들이 자리를 함께해 자리를 빛내고 따뜻한 격려와 축사를 전했다. 행사는 참가자들이 몸소 한

류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중심형 콘텐츠로 운영되었다. 김치 만들기와 한복 체험, 그리고 ‘주먹밥 만들기 대회’와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 등 한국 문화를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점심 식사 직후에는 화려한 태권도 시범 공연이 오후 행사 오프닝으로 펼쳐져 현장의 열기를 뜨겁게 달구었으며, 이어서 사전 선발된 5개 팀의 장기자랑 경연과 사물놀이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이어지는 3부 행사에서는 모든 참가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동체 게임을 진행해 다

문화 가정의 단합을 도모했다.

또한, 이날 재단 세션에서는 다문화 가정 후원 및 교육 지원을 고도화하기 위한 공식 웹사이트(www.ywkifamily.org)가 전격 공개되었다. 최진덕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축제를 빛내주신 다문화가족과 여러 도움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새롭게 문을 연 공식 홈페이지(www.ywkifamily.org)를 통해 다문화 가족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우리 아이들이 두 나라를 잇는 글로벌 인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태극기 그리기 대회 및 장기자랑, 공동체 게임의 우수 팀에 대한 시상식과 푸짐한 경품 추첨(Lucky Draw)을 끝으로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인도네시아 정부, UMKM 최종 소득세 0.5% 혜택 대상 대폭 축소

새 규정 공포로 소규모 법인 세제 인센티브 사실상 폐지,
개인 사업자 · 협동조합만 수혜 유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소기업(UMKM)에 적용해 온 0.5% 최종 소득세(PPH Final) 규정을 공식 개정하면서, 신규 설립되는 유한합자회사(CV) · 합명회사(Firma) · 주식회사(PT) 등 법인 사업자들은 더 이상 해당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최근 소득세 분야 규정 조정을 담은 ‘2026년 정부 규정 제20호’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2022년 정부 규정 제55호’의 후속 조치로, 0.5% 최종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 범위를 대폭 좁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수혜 대상 범위, 개인 사업자 ·

협동조합으로 제한 새 규정 제57조 1항에 따르면, 연간 매출 48억 루피아(약 4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부여되던 0.5% 우대 세율은 앞으로 ▲개인 납세자 ▲1인이 설립한 개인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 납세자 ▲협동조합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CV, 합명회사, 일반 주식회사(PT), 마을 소유 기업(BUMDes) 등은 신규 등록 시점부터 UMKM 최종 소득세 혜택 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 그간 소규모 법인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재정 인센티브로 기능해 왔던 세율 혜택의 문

턱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기존 수혜 법인, 만료 기간까지 혜택 유지 다만 정부는 기존 사업자들의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 조치를 마련했다. 개정안 제2항 e호의 전환 규정에 따라, 이미 구 규정(2022년 정부 규정 제55호) 하에서 혜택을 부여받은 CV, 합명회사, BUMDes, 일반 주식회사 등은 기존에 인정된 혜택 만료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0.5% 세율을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2023년 6월 20일에 납세자로 등록된 매출 48억 루피아 미만의 유한합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소기업(UMKM)에 적용해 온 0.5% 최종 소득세(PPH Final) 규정을 담은 ‘2026년 정부 규정 제20호’를 공포했다. 2026.5.31.


자회사 ‘CV AB’의 경우, 구 규정이 보장하는 4년의 과세 기간에 따라 2026년 과세 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0.5%의 최종 소득세 혜택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세수 기반 강화 · 세제 혜택 재편 의도 반영 이번 규정 개정은 세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세제 혜택의 수혜층을 보다 영세한 개인 사업자와 1인 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현지 세무 전문가들은 “새롭게 창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은 법인 설립 형태에 따라 세무 부담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법인 격식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무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시행 세칙 및 구체적인 적용 지침은 추후 관련 부처 규정을 통해 별도로 공식될 예정이다.


(한인포스트)



2026년 “에이스 에너지”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사업에 본격 투자합니다.

We are Korea's No. 1 Solar Power Development & EPC, O&M Company in Indonesia.
PT. ACE ENERGY SERVICE는 인도네시아 No. 1 Developmet & EPC, O&M 태양광 전문회사입니다.

2026년부터 ACE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합니다.
“ACE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전문 기업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선도 투자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합니다.”



ACE의 핵심 투자사업 영역
ACE는 다음과 같은 미래 지향적 사업 분야에 집중합니다.

- 산업형 태양광 솔루션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Non-CAPEX 솔루션 제안)
- OFF_GRID/IPP/PPP사업 투자/개발
- WTE, HYDROPOWER, 전기차 충전소
- 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와 연계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초기 자본 지출 부담, ACE가 없애드립니다!
ACE는 고객의 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한 초기 자본 지출(CAPEX)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혁신적인 비(非)CAPEX 금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투자 부담 없이 실제 RE100과 NET ZERO에 도전하세요.

- 즉각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
- 종합적인 관리 서비스를 통한 장기적인 최적 효과를 보장
- ESG,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목표 달성

성공적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 PT ACE ENERGY SERVICE에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연락처 : Mr. Steve Youn : 0812 9730 5553 / steveyoun.indo@gmail.com
Mr. Kang Sung Won : 0811 1055 5610 / ksw97711@naver.com

미래를 여는 에너지, ACE와 함께 만드세요!
PT. ACE ENERGY SERVICE
인도네시아 No. 1 Financing - EPC - O&M 태양광 전문회사

* ACE는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지역에서 수많은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탄중쁘리옥항, 컨테이너 약 1만개 적체 원인은?



▲자카르타 탄중쁘리옥 항구 [멜린도 유튜브 캡처]

인도네시아 최대 항구인 자카르타 탄중쁘리옥항에 최근 1만여 개에 달하는 컨테이너가 적체돼 수입 물품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통관 완료 후 기업들이 반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의 관료주의적 행정 지연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16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카 부디 우타마 관세청장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인도네시아 최대 항만인 탄중쁘리옥의 통관 절차는 국가 서비스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수입업체들이 화물 반출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항만 보관 시설을 계속 이용하면서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항만에 묶여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항만 내 컨테이너 적

체 증가는 통관 절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화물 반출 승인서가 발급된 이후에도 많은 기업이 즉시 화물을 반출하지 않아 컨테이너가 항만에 계속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자카 청장은 특히 중국 자동차 업체인 BYD와 우링모터스(Wuling Motors)를 예로 들며, 이들 기업이 통관 승인을 받은 후에도 최대 3일 동안 항만의 임시 보관시설을 계속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컨테이너는 2주 이상 항만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때 항만에 거의 1만 개의 컨테이너가 그대로 쌓여 있었다”고 말했다.

관세 당국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외부 창고 수용 능력이 부족한 데다 항만 내부 보관 비용이 외부 민간 물류시설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컨테이너를 항만 안에 장기간 보관한 것으로 파

악됐다.

이번 적체 사태는 항만 체류 시간(dwell time) 증가가 산업용 원자재 공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의 물류 효율성과 공급망 회복력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달 초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심각한 컨테이너 적체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탄중쁘리옥 항만을 직접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약 3,100건의 컨테이너 관련 서류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체류시간 증가의 원인이 돼 산업용 원자재 공급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푸르바야 장관은 “현재 상황으로 인해 체류시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업들의 원자재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컨테이너 적체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관세 인력을 증원하고 24시간 교대 근무 체제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대기 물량이 약 500개 수준으로 줄어들 때까지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24시간 교대 근무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한 항만 구역 내에 컨테이너를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동남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의 물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공급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발리 방문 모든 관광객, 루피아 사용 의무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급락하는 루피아화 방어를 위해 발리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관광객의 모든 거래는 루피아로 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발리 지부 로널드 동동 파를루후 탄 부지부장은 지난 19일 안타라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루피아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유일한 결제수단”이라고 밝혔다.

국내 거래에 루피아 사용을 의무화한 것은 최근 약세를 보이는 환율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현행법은 수출업체가 국제 계약에서 외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관광산업은 아직 이러한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인도네시아여행협회(Asita)는 관련 규정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협회 푸투 위나스트라 발리 지회장은 정부에 관광업체들이 미국 달러 등 외화로 관광상품 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실제 결제는 거

래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루피아로 이뤄지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관광산업이 외화를 벌어들여 루피아 환율 안정에 기여하고 있지만, 최근 루피아 약세는 업계에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광상품 가격은 대부분 루피아로 책정돼 있는 반면, 미국 달러 강세로 인해 각종 운영비는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공식 웹사이트에 미국 달러 등 외화 기준으로 가격을 표시하고 싶어도, 현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법 집행기관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푸투 회장은 말했다.

루피아 환율은 이날 현물환 시장에서 미국 달러당 17,804루피아까지 하락했다. 발리는 2026년 한 해 동안 약 660만 명의 해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중고 봉제기계, 봉사 및 악세사리, 매입

PT. SHINHAN GLOBEL

SHIN H. G +62 8581 1369 4992
Kakao ID 6shg10



인도네시아 스크린 골프 1등 설치 업체

설치업체 : 신발, 의류공장 기숙사 / 탄광, 발전소 현장사무소 / 개인주택 / 고급별장 / 아파트, (영업용) 루고, 대형빌딩, 백화점

착한가격/완벽한 시공/신속한 A/S

인니 최초 스크린골프(16년차)시장 개척중
인니 전지역 (200대 이상 설치) 풍부한 노하우
영업점: 롯데에비뉴 5층, 땅그랑, 버카시
신속한 A/S팀 운영중
이용료없이 무제한 사용가능

직원 복지용(다용도) 스크린룸 활용

다양한 골프연습 모드가능
직원간 화목한 스크린게임 이용
영화감상/노래방/운동경기 관람
온라인 화상회의 가능

특별 할인 행사 중고제품 1대 : 99 juta

WA / Call : 0815 7456 8000 (Mr Lee Jung Gi)
Email : vgolf03651@gmail.com



티웨이항공, 인천-자카르타 신규 취항 기념 네트워킹 리셉션 성료

인도네시아 항공청 · 공항공사 · 관광국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등 주요 관계자 참석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새로운 하늘길 개설 기념



▲티웨이항공은 자카르타에서 인천-자카르타 신규 취항을 기념하는 네트워킹 리셉션 개최했다. 주요 내빈과의 단체사진 왼쪽부터 티웨이항공 대표이사 이상윤, D.G.C.A Captain, Aji Ridho, INJOURNEY AERO COMMERCIAL GROUP HEAD AIRPORTS DANUS WINARKO INDONESIA MINISTRY TOURISM Deputy Minister NI MADE AYU MARTHINI 티웨이항공 마케팅 상무 최은영, 사진 티웨이항공, 2026.6.10.

티웨이항공이 자카르타에서 인천-자카르타 신규 취항을 기념하는 네트워킹 리셉션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Fairmont Jakarta)에서 'T' way Air Incheon-Jakarta Route Launch Networking Reception' 을 개최하고 양국 정부기관 및 주요 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신규 노선 취항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항공청(Directorate General of Civil Aviation), 인도네시아 국영 공항공사(InJourney Airports), 인도네시아 관광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KOTRA, 한국관광공사(KTO) 등 주요 정부기관 관계자와 현지 기업, 금융기관, 여행업계 및 인도네시아 프로 축구팀 축구감독 신태용 등 약 9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티웨이항공의 성장 과정과 글로벌 노선 네트워크, A330-300 광동체 항공기를 활용한 중·장거리 노선 운영 현황을 소개했으며, 인천-자카르타 노선 취항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연결하

는 핵심 노선으로, 양국 간 관광 및 비즈니스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현재 국내선 5개, 국제선 51개 등 총 5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호주·중앙아시아·북미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또한 소노트리니티 그룹과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항공과 호텔, 여행과 레저를 연결하는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윤 티웨이항공 대표이사는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통해 양국 간 교류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이번 네트워킹 리셉션은 신규 취항을 알리는 것을 넘어 현지 정부기관과 기업, 여행업계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다양한 협력 기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티웨이항공은 인천-자카르타 노선을 주 5회 운항하며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가는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인포스트

인니 국세청, 무상급식·홍백협동조합 사업에 “세수 감소 우려”



▲인도네시아 국세청 로고

인도네시아 국세청(DJP)이 무상급식 프로그램(MBG)과 홍백마을협동조합(KDMP) 사업이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가영양청(BGN)의 최근 규정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부실 운영 가능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1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비모 위자안토 국세청장은 18일, 국가영양청장이 발행한 공문에서 무상급식 조리시설(주방)에 지급되는 자금을 비과세 대상인 보조금으로 분류한 데 대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재화가 과세 대상이고 어떤 재화가 비과세 대상인지는 법률로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공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모 청장은 이 문건이 이달 초 부패 혐의로 수감된 전 국가영양청장 다단 힌다이나 재임 시절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영양청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현행 규정대로라면 해당 조치가 세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상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부모와 자녀 간 증여나 사회·교육·종교재단에 대한 기부 등 일부 경우에만 면세가 인정된다. 반면 사업 활동과 연계되거나 상업적 거래의 일부인 경우, 또는 세법상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비모 청장은 무상급식 주방 운영자들이 영리 활동을 하는 사업체인 만큼, 이들이 수령하는 자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홍백마을협동조합(KDMP) 사업에서도 세수 감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동조합 건물 건설 과정에서 실제 건축자재 지출액이 예산 한도보다 적을 경우 예상 세수가 줄어 들 수 있으며, 이는 건설 관리 부실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동조합의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세무 의무 미이행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협동조합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세무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금 신고, 세액 계산, 원천징수 및 세금 징수 등 납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세제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자진신고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세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영양청(BGN), 식량조정부, 협동조합부, 협동조합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국영기업 아그리나스(Agrinas) 등 관계 기관과 거래 데이터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비모 청장은 국세청이 이미 관련 기관 수장들과 접촉해 데이터 통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잠재적인 세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5월 말 기준 인도네시아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한 834조4천억 루피아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5월의 760조 루피아와 2025년 5월의 683조 루피아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KOWEB INDONESIA
홈페이지
제작 합니다
0812 9354 7052
yoon@koweb-indonesia
카카오 ID : rickyoon



유성 종합건설

PT. YUSUNG JAYA ABADI

기술로 짓고 신뢰로 완성합니다.

건설 기계 전기 배관
정수 및 폐수처리시설







유성열 대표 : 0812 8037 0303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Raya CurugPos Bitung15810
yusungjaya1@hotmail.com / 021 598 0222

카카오 창사 첫 파업... 재외동포 “모국과의 소통 끊길까” 불안

성과급 갈등으로 노조 600명 판교 거리 행진... 대사관 영사서비스 채널 우려 동포 사회도 촉각



▲카카오·카카오뱅크,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

카카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가운데, 카카오톡을 통해 모국과 소통해온 전 세계 재외동포들 사이에서도 서비스 장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화합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파업과 함께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경기도 판교아지트 앞에서 유스페이스까지 약 800m 구간을 행진하며 조합원 600여 명이 거리에 나섰다.

성과급 놓고 노사 갈등 장기화

이번 파업의 핵심 원인은 성과급 보상 구조를 둘러싼 노사간 이견이다. 카카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4%에 해당하는 약 1,000만 원 상당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 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요구가 경영에 지나친 부담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양측의 협상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결국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마저 결렬되자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고 파업을 단행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법인은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총 5곳이다.

재외동포 사회, 카카오톡 의존도 높아 촉각

이번 파업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수백만 재외동포에게 미칠 영향 때문이다. 카카오톡은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대사관 영사 서비스 채널, 고국의 가족, 지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국내 뉴스 및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핵심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를 통한 국내 송금 및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외동포들은 서비스 중단 가능성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주, 유럽, 동남아시아 등지에 거주하는 교민들 사이에서는 “카카오톡이 끊기면 고국과의 연결 고리가 사라지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사측 “서비스 차질 없도록 비상 대응 체계 가동”

다행히 이번 파업이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 운영에 즉각적인 대규모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IT 기업의 특성상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핵심 인력은 유지되고 있으며, 주요 시스템이 상당 부분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 측은 “당사는 수많은 이용자의 일상을 연결하고 소상공인과 파트너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플랫폼 기업”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안정성을 지키는 일은 카카오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필요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재외동포를 포함한 수천만 국내의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카카오 노사가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한인포스트)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aeto@gmail.com

인도네시아, 뒷돈 주던 ‘급행 비자’ 전면 폐지 실미카림 전 차관 등 인니 부패 관료들, 110억대 ‘체류허가 장사’ 적발 파문 인니 정부, “명백한 갈취·뇌물... 수수료 전액 국고 귀속”

새 규정 공포로 소규모 법인 세제 인센티브 사실상 폐지, 개인 사업자·협동조합만 수혜 유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체류허가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비자를 신속 발급해 주던 ‘급행 절차’ 관행을 전면 폐지했다.

인도네시아 국영 안타라(ANTARA) 통신에 따르면, 유스틸 이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이민·교정조정장관은 최근 성명을 통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취임과 새 내각 출범 이후 아구스 안드리안토 이민국가교정부 장관 주도로 이민 행정 전반의 정비 조치가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이민 당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임시체류허가(ITAS) 및 영주권(ITAP)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대가로 음성적인 자금이 오가는 부정행위가 지속됐다. 규정상 노동부 등 타 부처 연계 절차로 인해 4~5일이 소요되어야 할 행정, 별도 비용 지불을 통해 1~3일 만에 처리되는 방식이었다.

유스틸 장관은 과거 실미카림 전 차관 시절 조작된 ‘급행 발급 절차’가 현재 완전히 근절되었으며, 모든 신청은 규정대로 4~5일 이내에 검토·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식 국고로 납입되지 않던 과거의 급행 비용을 ‘



▲인도네시아 발리 주재 이민국에서 대기중인 외국인들 [인도네시아 국영통신사 ANTARA]

갈취 및 뇌물 수수’로 규정하며, 향후 징수되는 모든 수수료는 전액 국고로 납입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가 적발한 대형 비리 사건이 계기가 됐다. KPK에 따르면, 실미카림 전 차관은 이민국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부터 올해까지 관료들과 공모해 외국인 및 대행업체 등으로부터 체류허가 비자 급행 처리 명목으로 총 1455억 루피아(약 800만 달러·한화 약 11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 한인 사회에서는 이번 조치로 체류허가 발급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은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음성적 자금 요구 관행이 사라지면 장기적으로 이민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져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



PT. 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부문
인도네시아 정부(DEPNAKER) 대행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기관,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산업보건 환경 지킴이!



노동부 장관 BIC 방문 (2022.12)



노동부 차관 BIC 방문 (2023.12)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임명 (2024.5)



수하르토 대통령 BIC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지정 (1993~2007)

www.bicjayaindonesia.com

JAKARTA : Wisma Staco 6F, Jl. Raya Casablanca Kav. 18 +62 21 3049 0114 bicjaya.id@gmail.com
KOREA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 +82 51 365 0041 www.bic-korea.com



UTAMAK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BIC은

- 작업환경측정(K3)/산업보건 환경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계 인도네시아 정부(노동부) 대행기관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업체 연 1회 작업장 환경측정/근로자 건강검진 법적 의무사항
- 한국에서 노동부 지정 산업보건기관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축적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사내 클리닉 (In House Clinic) 운영을 패키지로 일괄 수행
- 40여년간 한국에서 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 관광부, 노동부, 할랄청 대표부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각별한 협력관계 유지, 우리 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정부 애로사항 해결지원

홍삼볼, 인도네시아 시장 공식 진출...카페인 0% 건강 에너지 음료 선보여



▲홍삼볼 인도네시아 런칭기념 골프대회. 2026.6.13.



▲홍삼볼 인도네시아 런칭기념 행사장에서 송창근 회장(오른쪽)과 신태용 감독(왼쪽) 2026.6.13.

홍삼볼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공식 진출했다.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카라와치 소재 임페리얼 골프 클럽에서 개최된 ‘2026 홍삼볼 오픈’ 행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의 공식 론칭을 알린 것이다. 이번 행사는 홍삼볼을 ‘한국의 건강 에너지 음료’로 소개하며, 천연 홍삼의 효능을 현대적이고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과 결합한 제품임을 강조했다.

시중의 일반적인 에너지 음료와 달리 홍삼볼은 한국산 홍삼의 천연 효능을 바탕으로 제조되며 카페인 함유량이 0%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자연스러운 에너지 공급원을 제공하면서도 일상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026 홍삼볼 오픈’ 골프 행사에는 수백 명의 골퍼가 참가했으며, 인도네시아의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도

대거 참석했다. 서에리아, 웬디 가구르, 탄타 킨팅, 아디파티 돌켄 등 저명인사들의 동참은 대회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인도네시아 골프 커뮤니티 내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홍삼볼 인도네시아의 송창근 회장은 “건강을 중시하는 에너지 음료 시장으로서 인도네시아가 지닌 잠재력이 크다”며 “홍삼볼을 통해 단순한 에너지 전달을 넘어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웰빙과 일상 생

산성을 뒷받침하는 음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의 열기는 공동대표 신태용 감독의 참여로 더욱 고조되었다. 신 감독은 지친 기력 회복과 퍼포먼스 유지를 위해 일상적으로 인삼을 섭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탄트리 살린드리 이찰사리와 자카르타 전 주지사인 바수키 하자 푸르나마 등 홍삼볼 홍보대사들이 제품의 효능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현지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번 론칭 행사는 ‘아이스 브레이킹(Break the Ice)’으로 마무리되며 인도네시아에서의 홍삼볼 여정의 첫 발을 뒀다. 홍삼볼은 이번 진출을 계기로 한국산 홍삼의 우수한 효능을 더 넓은 범위의 대중에게 알리는 한편,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보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의 중요한 선택지가 되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했다.

(한인포스트)

제76주년 6.25 전쟁 기념식 및 나라사랑 글짓기 시상식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는 제76주년 6.25 전쟁 기념행사 및 나라사랑 글짓기 경연 시상식을 6월21일 자카르타한국국제대학교(JKS) 나래홀 강당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강원준 공사참관, 한인회 김종헌 회장, 상공회의소 이강현 회장, 이문성 교장,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현상범 제2대 회장, 송재선 원로고문, 신규태 고문, 배응식 수석부회장과 김홍규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회

원들, JKS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UP(반동교육대학교)한국어과 학생들과 UNAS대학생들과 함께 성대히 진행되었다. 이날 한국자유총연맹 인니지부 전민식 회장은 기념사에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과 유엔군 참전용사들에게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또한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과 함께, 76년전, 조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6.25 전쟁

은 많은 것을 앓아 갖고, 3년 동안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거나 성치 않은 부상자가 발생되었으며, 약 천만명의 이산가족과 함께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폐허 위에서 세계에서 주목받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경제 10위권 경제대국을 이룸으로써, 전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음은 물론, 이젠,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며, 전세계를 리딩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라

고했다. 아울러 나라사랑 글짓기 수상자 중 대상 안지우 학생, 최우수상 김지율학생, 조은수 학생의 발표가 있었으며, 그외 우수상 오윤솔, 강소은, 하예은, 김지유 학생과, 장려상 이슬, 박서은, 서준우, 오시현 박혜영, 강서현, 김나예, 권수아 학생으로 총15명이 수상을 하였다. 또한 2부 행사에서는 반동교육대학교 한국어과 남.여 학생으로 구성된 K-POP 댄스와 깃발춤과 UNAS 대학생으로 구성된 사물놀



이 한마당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모두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송고하게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에 경의를 표하며, 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함께 기원하는 달이 되길 바란다

PT. Indokon Multi Sarana는 실내·실외 비디오트론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No.1 선도 기업으로, 인테리어 시공 전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T. Indokon Multi Sarana

신뢰할 수 있는 **비디오트론 솔루션 & 인테리어 시공** 전문 기업

PT. Indokon Multi Sarana는 정밀한 기획, 프리미엄 자재, 그리고 전문적인 시공 기준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미적 가치, 높은 완성도를 갖춘 비주얼 및 공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선명한 디스플레이, 내구성 높은 시스템, 그리고 철저한 납기 준수를 실현합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산업 단지, 오피스, 상업 공간, 공공 시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IMS www.indokonmultisarana.com
PT. INDOKON MULTI SARANA (+62)21-2263-2551
Jakarta, Indonesia

인니파견 세무공무원, 한국 최초 『인도네시아 조세소송 판례집』 출간

인도네시아 조세법원·대법원 판례를 한국어로 체계화한 첫 전문서
현지 진출 한국 기업과 동포들의 세무 리스크 대응을 위한 실무 참고자료



▲인도네시아 내무부 협력촉진센터에 파견 근무 중인 대구광역시청 소속 세무공무원 권창안 주무관은 최근 『인도네시아 조세소송 판례집』 제1권과 제2권을 출간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동포들이 현지 세무제도와 조세분쟁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서가 출간됐다.

현재 자카르타에서 국제기구인 UCLG ASPAC(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 지부)와 인도네시아 내무부 협력촉진센터에 파견 근무 중인 대구광역시청 소속 세무공무원 권창안 주무관은 최근 『

인도네시아 조세소송 판례집』 제1권과 제2권을 출간했다. 이번 도서는 인도네시아 조세법원(Pengadilan Pajak)과 대법원(Mahkamah Agung)의 주요 판례를 한국어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전문서로 평가된다.

특히 인도네시아 조세불복 제도와 세목별 주요 분쟁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기업과 동포들이 현지 세무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수많은 한국 기업과 교민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환급, 법인세 과세, 원천징수세, 이전가격 과세 등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국어로 설명한 전문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권창안 주무관은 이러한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수년간 인도네시아 조세법

원 및 대법원 판례를 수집·분석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조세소송 제도와 주요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번 판례집은 단순한 법률 해설서가 아니라 실제 재판에서 다루어진 주요 쟁점과 판단 논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의 세무담당자, 회계담당자, 법무담당자뿐 아니라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동포들에게도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집필되었다.

제1권은 조세불복 절차와 소득세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법인세(PPH Badan), 개인소득세(PPH Orang Pribadi), 원천징수세(PPH Pasal 21·23·26) 등 주요 소득세 관련 판례를 다루고 있다.

제2권은 부가가치세(PPN)를 중심으로 지방세(Pajak Daerah), 토지건물세(PBB),

취득세(BPHTB), 인지세(Bea Meteral) 등 다양한 세목의 판례를 수록하였다.

권창안 주무관은 “이번 책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경제협력 확대 과정에서 양국의 제도적 이해를 높이고 현지 진출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창안 주무관은 인도네시아 아트마자아 가톨릭대학교 회계전문과정(PPAK)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세무사(Enrolled Agent, EA)와 인도네시아 세무실무전문가(Certified Professional Tax Technician, CPTT)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조세소송 판례집』은 현재 YES24와 영풍문고를 통해 전자책 및 종이책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한인포스트)

■ 저자 소개

권창안 주무관

- 대구광역시청 세무공무원
- 국제기구 UCLG ASPAC(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파견관 · 인도네시아 내무부 협력촉진센터 파견관
- 장기국외훈련(핀란드 탐페레대학교 행정학 석사(MPA))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네시아학 학사
- 인도네시아어 전문번역사 (국제통역번역협회 IT)

KISTI, 인도네시아에 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구축...아세안 협력 발판

한-아세안(ASEAN) 디지털 협력



▲국가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사진=KISTI

국가 초고성능컴퓨팅인프라를 운영하는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가 한-아세안(ASEAN) 디지털 협력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에 고성능컴퓨팅(HPC) 인프라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KISTI와 함께 인도네시아 연구혁신청에서 공식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한-아세안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아 2024년부터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과 고성능컴퓨팅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아세안 국가에 공유해왔다.

이번에 구축될 고성능컴퓨팅 인프라는 대규모 데이터 분석과 초거대 AI 학습의 필수 기반이 되는 핵심 자원이다. 태국과 싱가포르를 제외한 9개 아세안 회원국은 그간 고성능컴퓨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KISTI 주관하에 인도네시아에 구축될 인프라는 4.2PF(페타플롭스·1PF는 컴퓨터가 1초당 1000조번 연산하는 것)급 고성능 슈퍼컴퓨터다. KISTI는 2028년까지 현지 운영 인력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병행하는 한편, 국내에서 운영 중인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플랫폼을 현지화해 구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 전반에 국내의 우수한 HPC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국산 AI 반도체 및 보안 기술 등이 대거 반영됨에 따라 국내 AI·디지털 기업이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적을 확보하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Create Well Life

CERAGEM

“건강한 척추관리가 바로 세월을 이기는 힘입니다!”

비만 만성질환개선 신경통

피로는 만병의 근원!
매일 올바른 척추관리는 활력넘치는 일상생활을 보장합니다

ECHOM 제도실시
Master V3를 가정에서 1개월동안 충분히 효능을 느껴보시고 결정하세요!

위치 : Ceragem Tangerang center / Ceragem BSD center
문의처: LEE TAE JU 62 812 9276 7549 / MELINDA +62 858 8292 0201

COSMO www.cosmofamily.com

GFRP WIREMESH

GFRP REBAR

더 가볍게, 더 강하게.
인도네시아 최초 SNI 인증 GFRP 보강근 제조사.
부식 없는 철근 대체 솔루션
Cosmo GFRP Indonesia.

Office : Menara Bidakara 1, 21st Floor, Unit 2152 & 2156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 71-73 Kelurahan Menteng Dalam, Kecamatan Tebet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870

Factory : Kawasan Industri Suryacipta City of Industry, Jalan Surya Madya XIV, Kavling I-67A3, Kabupaten Karawang, Provinsi Jawa Barat 41362

Tel. : +62 811 9630 8805
Email : jaydentyp@cosmogfrp.co.id

스피드와 안정성을 한 컬레에, 아디다스 하이브리드 트레이닝화 출시



▲러닝화와 트레이닝화의 핵심 기술을 모두 합쳤다. / 사진제공: 아디다스코리아

아디다스가 러닝의 스피드와 근력 운동의 안정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트레이닝화 ‘아디제로 드롭셋 프로’가 18일 출시된다. 글로벌 리딩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러닝의 스피드와 근력 트레이닝의 안정성을 한 컬레에 담은 하이브리드 트레이닝화 ‘아디제로 드롭셋 프로 (Adizero Dropset Pro)’를 오는 6월 18일 출시한다.

‘아디제로 드롭셋 프로’는 러닝과 근력 운동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트레이닝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아디다스 러닝화의 ‘아디제로(Adizero)’와 트레이닝화의 ‘드롭셋(Dropset)’, 강력한 두 아이콘의 강점을 타협 없이 결합했다. 러닝 스피드를 희생하지 않고도 모든 근력 운동에서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선사하여, 트레이드밀 인터벌부터 슬레드 푸시, 웨이트 런지, 파머스 캐리, 월 볼까지 다양한 하이브리드 트레이

닝 동작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출시하자마자 경기력으로 입증된 하이브리드 레이싱화 ‘아디제로 드롭셋 엘리트(Adizero Dropset Elite)’가 최상위 퍼포먼스를 위한 신발이라면, ‘아디제로 드롭셋 프로’는 레이스 데이를 위한 매일의 트레이닝을 위한 퍼포먼스화로서의 기능을 다 할 예정이다. 이렇게 완성된 ‘아디제로 드롭셋’ 시리즈는 일상 트레이닝에 최적화된 균형 잡힌 착화감으로 데일리 트레이닝부터 경기장까지, 입문자부터 선수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최근 하이브리드 전용 풋웨어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는 다양한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아디다스가 전 세계 하이브리드 트레이닝 인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현재 트레이닝화가 운동 중 퍼포먼스를 제한한다고 답했으며, 약

47%는 현재 신발이 러닝과 근력 운동을 모두 온전히 지원하지는 못한다고 응답했다.

‘아디제로 드롭셋 프로’에는 아디다스의 러닝화와 트레이닝화의 핵심 기술이 집약됐다. 초경량 ‘라이트스트라이크 프로(Lightstrike Pro)’ 폼은 초경량 쿠셔닝과 에너지 리턴으로 원하는 만큼 페이스를 밀어주는 반발력을 선사하며 차원이 다른 스피드를 완성한다. 여기에 ‘에너지 로드(Energy Rods)’가 발의 힘을 끊김 없이 되돌려주는 에너지 리턴과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더한다. 또한 ‘컨티넨탈(Continental™)’ 러버와 경량 트랙션 시스템 ‘라이트 트락시온(Lighttraxion)’의 조화로 젖거나 마른 지면 어디에서나 강력한 접지력을 제공해, 빠른 움직임에도 흔들림 없는 정교한 컨트롤로 강도 높은 세트를 안정적으로 소화하도록 돕는다. 2.6mm 초박형 아디제로 삭라이너는 무게를 최소화하고 낮은 스택 높이를 유지해 근력·기능성 동작 시 지면 감각과 컨트롤을 높인다.

아디다스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트레이닝을 즐기는 이들은 더 이상 한 가지 운동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며, “아디제로 드롭셋 프로는 준비 단계부터 경기까지, 하이브리드 트레이닝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탄생한 제품”이라고 전했다. 이번 ‘아디제로 드롭셋 프로’는 아디다스 공식 온라인 스토어와 주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ESQUIRE

베이프 x 아디다스 아디제로 EVO SL 공개 오른발은 로얄 블루, 왼발은 다크 그린.



BAPE 및 adidas는 신규 Adizero EVO SL 스니커즈를 통해 오랜 파트너십의 최신 챕터를 열어 간다. 이번 드롭의 중심에는 생동감 넘치는 “Blue/Green”과 “White/Gold” 두 가지 컬러웨이가 자리하며, 각각이 퍼포먼스 기능성과 스트리트웨어 감성을 고유한 균형감으로 풀어낸다.

강렬한 컬러 대비와 좌우 분할 공식을 한층 극대화한 “Blue/Green” 버전은 의도적인 미스매치 미학을 전면으로 내세운다. 화이트 베이스 대신 오른쪽 스니커즈는 짙은 로열 블루 메시로 전체를 채우고, 왼쪽은 풍부한 다크 그린 메시로 전환된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슈즈는 볼록 같은 레드 슈레이스와 이에 맞춘 레드 카라 라이닝, 아이스 테이와 텅 스태빌라이저를 감싸

는 선명한 터퀴즈 포인트 등 강한 대비의 디테일을 통해 시각적으로 하나로 묶인다.

한편 “White/Gold” 컬러웨이는 깨끗하고 통기성이 뛰어난 화이트 엔지니어드 메시 어퍼를 캔버스로 삼아, 강렬한 비대칭 컬러 블로킹을 펼친다. 좌우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핫 핑크, 오른쪽에는 부드러운 스카이 블루 톤을 사용해 주된 포인트 컬러를 양분했다. 브랜딩은 경쾌한 비대칭 구성이 특징으로, 한쪽 측면에는 클래식한 adidas Three Stripes를, 안쪽에는 골드 톤의 BAPE Shooting Star(STA) 로고를 배치하고, 반대쪽 슈즈에서는 이 레이아웃을 반전시켰다.

두 모델 모두 스플릿 브랜딩을 적용해 한쪽에는 adidas Three Stripes를, 다른 한쪽에는 BAPE의 STA 로고를 더해 이번 협업의 이중적 아이덴티티를 부각한다.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adidas LIGHTSTRIKE PRO 폼 미드솔을 적용해 탄력 있는 쿠셔닝을 제공하며, 아웃솔에 더한 옐로 컬러 트랙션 포인트가 접지력과 시각적 대비감을 동시에 강화한다. [HYPEBEAST]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세기

TEL: +82-2-465-6308/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전상규 법인장: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오니츠키 타이거, 아식스에서 독립한다

내년 1월 자회사 OT그룹으로 승계...브랜드 가치 관리가 핵심



▲오니츠키 타이거가 내년 1월 OT그룹으로 사업 승계된다. 사진=오니츠키 타이거

일본 아식스가 오니츠키 타이거 사업을 분사한다. 아식스는 6월 10일 이사회에서 오니츠키 타이거 브랜드 관련 사업을 100% 자회사인 OT그룹으로 승계하는 회사분할 방침을 결정했다. 효력 발생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이번 조치는 오니츠키 타이거를 아식스의 스포츠 퍼포먼스 사업과 분리해, 독립성이 높은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운영하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된다. 아식스가 밝힌 분사 방식은 ‘간이 흡수분할’이다. 아식스가 분할회사, OT그룹이 승계회사가 되며, OT그룹은 오니츠키 타이거 사업 관련 자산·부채·계약 등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아식스는 이번 재편이 연결

자회사 내부의 조직 개편인 만큼 연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즉, 오니츠키 타이거가 그룹 밖으로 매각되거나 상장되는 구조가 아니라, 아식스 그룹 내부에서 별도 분사 체계를 갖추는 방식이다. 핵심은 의사결정 속도다. 아식스는 최근 오니츠키 타이거 사업이 전개 지역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글로벌 성장이 빨라졌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내 컴퍼니 체제에서 직영점 중심 사업과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포지셔닝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성장 속도가 빨라질수록 제품 기획, 매장 입지, 가격 정책, 협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스포츠 퍼포먼스 사업과 동일한 조직 논리로 운영하기

어려워진다. 이번 분사는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OT그룹은 지난 2월 말 설립됐으며, 분사는 도쿄 기타야오야마에 둔다. 대표는 기존 아식스 내 오니츠키 타이거 사업을 이끌어 온 소다 료지가 맡는다. 아식스 발표에 따르면 OT그룹은 오니츠키 타이거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사업을 총괄하며, 산하에 국가별 판매·제조 기능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재편된다. 전개 국가는 약 160개국, 그룹 전체 직영점 수는 약 190개, 인력은 약 2800명으로 제시됐다. 오니츠키 타이거의 2025년 매출은 1365억 엔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이는 2025년 아식스 연결 매출 8109억 1600만 엔의 약 16.8%에 해당한다. 수익성도 높다. 로이터는 오니츠키 타이거 사업의 2025년 이익률이 약 38%로, 아식스의 5대 핵심 카테고리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보도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나이키 Caitlin 1 “Racer Blue” 농구화 공식 공개

첫 시그니처 실루엣은 옵티캐스트 몰딩 어퍼와 전용 Zoom Turbo 쿠셔닝을 탑재했습니다. Nike가 많은 기대를 모아온 Nike Caitlin 1 농구화를 디테일이 살아 있는 첫 공개 컷과 함께 공식 소개했다. Nike Basketball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는 이번 새로운 시그니처 실루엣은 하드우드 코트를 위해 설계된 고수준 퍼포먼스 엔지니어링과 개성이 뚜렷한 퍼스널 디자인 요소를 유려하게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그니처 스니커즈는 역동적인 웨이브 라인이 강조된 고밀도의 비주얼 아키텍처를 선보인다. 실루엣 외곽을 따라 반복되는 “CC”와 “22” 구조적 디테일이 정교하게 녹아 있어, 플레이어의 퍼스널 브랜딩과 등번호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요소로 작용한다. 기본 구조에는 고급 Opticast 몰디드 어퍼를 적용해 코트 위 격렬한 움직임 속에서도 뛰어난 지지력과 통기성, 그리고 발을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탄탄한 락다운 핏을 구



현하도록 설계했다. 아웃솔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코트에서의 감각을 최적화하기 위해 멀티 레이어 쿠셔닝 매트릭스를 적용했다. 미드솔에는 Nike의 검증된 Cushlon 쿠셔닝 컴파운드와 포어풋에 배치된 전용 Zoom Turbo 유닛을 조합했다. 이 테크니컬 셋업은 우수한 충격 흡수력과 부드러운 힐 토크 전환, 그리고 빠른 킥 동작과 패스트 브레이크를 구사하는 선수들을 위한 폭발적인 반응성을 제공하도록 정교하게 튜닝되어 있다. Nike Caitlin 1은 10월 1일, 140달러(미국 기준)의 소비자가로 정식 발매되며 Nike의 디지털 플랫폼과 전 세계 일부 셀렉트 리테일러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HYPEBEAST

미발매 트로피 룸 x 나이키 에어 조던 4 샘플 이미지 공개

마커스 조던이 올랜도에 위치한 자신의 트로피 룸 부티크를 온라인 전용 스토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에어 조던 4 샘플이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다. 오프라인 스토어의 상징적인 ‘1부터 30’ 전시 케이스를 채웠을 법한 이 대체 페어는, 해당 리테일러의 초기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를 엿볼 수 있는 드문 단서를 제공한다. 이 대체 디자인은 최종 출시된 2016년 버전의 컬러 블로킹에서 과감히 벗어난 구성이다. 공개된



이미지 속에서는 그레이 스웨이드를 베이스로, 강렬한 골드 포인트가 더해진 보다 정제된 조합을 확인할 수 있다. 블랙 디테일은 미드솔과 윙, 힐 탭 전반으로 범위를 넓히며, 전체적으로 한층 스텔시한 인상을 완성한다. 이미 여러 스

니커 팬과 해설자들은 이 미공개 버전과, 이 샘플이 제작되었을 시점으로부터 약 1년 뒤 발매된 ‘로열티(Royalty)’ 컬러웨이 사이의 높은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 특정 Trophy Room x Air Jordan 4는 애초 상업적 발매를 전제로 기획된 모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스토어까지 공식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이 샘플이 실제 시장에 출시될 것이라는 미약한 기대 역시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이다. [HYPEBEAST]

틈스 목금형(틈스발형)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틈스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틈스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1987busan@naver.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틈스금형, 특수 칼금형

아시아 곳곳에서 규모 5~6대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일본 수도권 인근에서는 최대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과 중국 서부 칭하이성에서는 부상자와 사망자가 나왔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오후 7시 46분께 이바라키현 남부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5.5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 깊이는 약 50km로 추정됐으며 군마현과 사이타마현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진도 5약이 관측됐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흔들림이 강했던 지역에서는 낙석이나 절벽 붕괴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1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5약 수준의 지진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향후 2~3일 사이 비교적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인도네시아에서도 강

일본 · 인도네시아 · 중국 연이은 지진 발생 아시아 곳곳서 규모 5~6대 지진



▲지진과 쓰나미가 지나간 팔루(Palu) 지역의 모습(출처: 월드비전)

한 지진이 발생했다. 16일 오전 11시 27분께 술라웨시섬 팔루 인근에서 규모 6.7 지진이 발생해 8명이 다쳤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진원 깊이를 10km로 분석했으며 진앙은 인구 약 39만 명의 도시 팔루에서 남동쪽으로 43km 떨어

진 지점으로 파악됐다.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은 시기 지역에서 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이라고 밝혔다. 일부 건물의 벽과 지붕이 무너졌으며,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환자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

도 했다. 첫 지진은 4~6초가량 이어졌고 이후 최대 규모 5.2의 여진이 10여 차례 더 발생했다.

중국 서부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16일 오후 5시 6분께 칭하이성 하이시에서 규모 6.3 지진이 발생했다. 오후 6시 40분 기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진앙은 북위 37.80도, 동경 95.56도이며 진원 깊이는 10km다.

진앙 인근에는 소금 호수와 광산 관련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는 일부 기업 관계자들이 강한 흔들림을 느꼈지만, 생산과 경영에는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진앙 부근 탄광 기업의 작

업 인원들이 모두 철수했으며 추가 인명·재산 피해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세 지진 모두 쓰나미 경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본 지진은 내륙 깊은 곳에서 발생했고, 인도네시아 지진도 섬 내륙 산악 지역에서 발생해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은 국가다. 2004년에는 수마트라섬 북부 아체주 해상에서 규모 9.1 강진이 발생한 뒤 쓰나미가 덮쳐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다.

이번 지진들은 발생 지역과 피해 규모는 달랐지만, 하루 사이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강한 흔들림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각국 당국은 여진과 추가 피해 가능성을 주시하며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투데이

HANSHIN

에어 콤프레셔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